

국산 저지종 젖소, 분만 후 케토시스 위험 2.82배 높아

분만 초기 건강관리 기초자료 활용

농촌진흥청이 국내에서 사육되는 갈색 젖소 '저지종'의 분만 후 질병 특성을 분석해 품종별 맞춤형 사양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국내 저지종 25마리와 홀스타인종 149마리를 대상으로 분만일부터 21일까지 3일 간격으로 혈액을 검사해 케토시스 등 대사성 질병 발생 여부를 비교했다고 19일 밝혔다.

분석 결과 저지종의 케토시스 발생률은 72.0%(18마리)로 홀스타인종 47.7%(71마리)보다 높았으며, 발생 위험도 2.8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케토시스는 분만 후 우유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 체지방을 과도하게 소모하면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식욕

저하와 우유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저마그네슘혈증 발생률은 저지종이 8.0%(2마리)로 홀스타인종 30.2%(45마리)보다 낮았다. 저인혈증은 두 품종 모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대사성 질병으로 나타나 분만 후 무기질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진청은 저지종 사육 농가가 분만 직후 사료 섭취량과 체중, 우유 생산량을 세심하게 관찰해 에너지 부족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영양 보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Animals'에 게재됐으며, 농진청은 연구 내용을 '저지종 젖소 사



▲저지종 농촌진흥청 제공

양관리 기술서' 개정판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상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장은 "이번 연구는 저지종의 품종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 정보를 구체화했다는 데 의

미가 있다"며 "국내 사육환경에서 축적한 자료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맞춤형 사양관리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limes.com

외국인 점점 확대하며 '한우 세계화' 사업 총력

전담여행사 연계 성과 발판으로 한우 세계화 본격화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넘어 전년 동기 대비 21% 이상 증가하는 등 방한 관광객이 빠르게 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함께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직접 경험하려는 수요도 높아지면서 관광과 미식을 연계한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방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에 발맞춰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이하 한우자조금)는 올해 상반기 추진해 온 외국인 관광객 대상 체험 프로그램과 글로벌 거점 옥외광고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한우 세계화 사업'을 한층 강화한다. 이를 통해 한우를 한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미식 콘텐츠로 육성하고, 외국인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해 한우의 글로벌 인지도와 소비 기반을 넓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우자조금은 지난 6월 10일 해외 럭셔리 관광 바이어 대상 행사인 'Explore Seoul with Connections'와 연계해 한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통

주와 한우 육포 페어링을 비롯해 클로징 디너에서 한우 등심 구이를 선보이는 등 다채로운 한식 메뉴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한우의 맛과 품질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한우자조금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외 관광업체와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방한 관광상품에 한우 체험을 결합하여 대표적인 미식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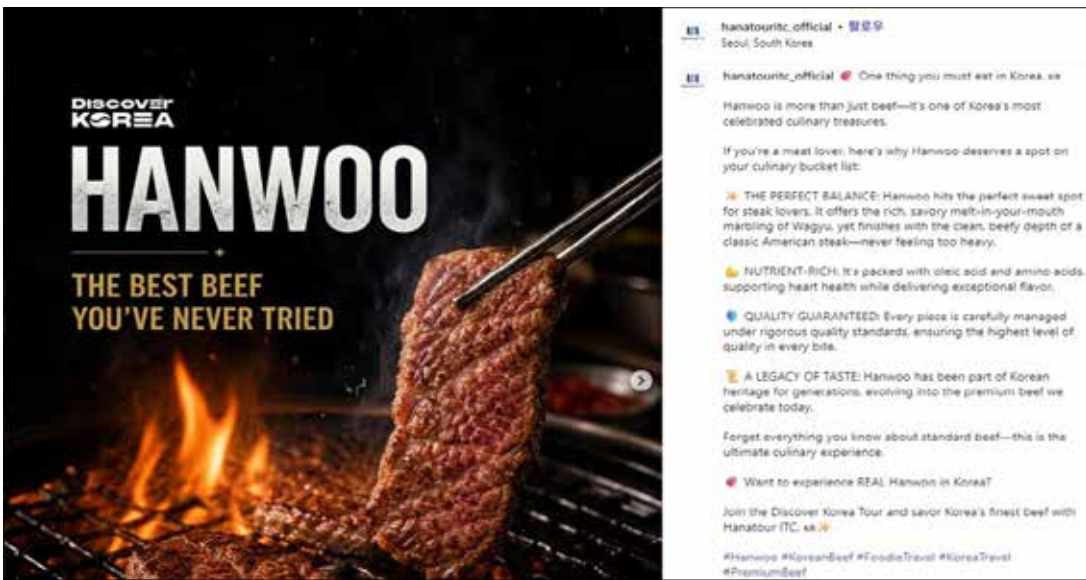
광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외국인이 직접 한우를 조리하고 맛보는 쿠킹클래스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지속 운영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서울·전북·부산 등 4개 전문업체와 연계해 7월 말 기준 총 17회에 걸쳐 199명이 참여했으며, 오는 11월까지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하나투어ITC,

EHOO LTS, 우리클럽관광개발 등 3개 인바운드 마케팅 전문 여행사를 '한우 전담여행사'로 지정해 미주, 유럽, 동남아 등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우 식사 및 체험 프로그램을 연중 지원하고 있다.

'한국을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한우를 먹는 것'이라는 콘셉트를 바탕으로, 한국의 매력적인 풍경과 한우의 압도적인 비주얼을 결합한 광고를 선보여 방한 외국인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limes.com



▲한우자조금 제공

전국한우협회, '자가 TMR 제조·이용 기술교육' 실시

원료 선택부터 배합비 설계까지 교육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국립축산과학원과 공동으로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대전 대덕대학교 정공관에서 '2026년 자가 TMR 제조·이용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한우자조금의 지원으로 마련된 이번 TMR 교육은 전국에서 약 50여 한우농가가 참여했다. 사료비 부담을 낮추고 농가 스스로 사육단계와 원료 여건에 맞는 TMR을 설계·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은 실제 자가 TMR을 활용하고 있는 한우농가의 사례와 전문가 이론 교육, 컴퓨터를 활용한 배합 프로그램 실습을 연계해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첫 강의를 한라한우촌 양의종 대표와 삼출농장 한기웅 대표가 원료 선정과 배합, 성장단계별 사양관리 등 자가 TMR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며 자가 TMR 도입 과정부터 원료 선정과 배합, 성장단계별 사양관리 방법을 비롯해 사료비 절감과 출하성적 개선을 위한 실제 농장 관리 노하우가 소개됐다.

특히 사료 원료를 단순히 저렴하게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가 여건에 맞는 원료의 영양가와 수분 함량 등을 고려해 적정 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어진 강의에서 국립축산과학원 백열장 연구관은 TMR의 기본 원리와 영양소 요구량, 원료사료 선정 방법을 설명했으며, 박명선 연구사는 자가 TMR 배합 프로그램 실습을 진행해 참여 농가들이 직접 배합비를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강조되는 안전관리 교육도 교육도 병행됐다. 국립축산과학원 양병준 주무관은 누

전·단락·과부하 등 주요 전기 위험요인과 차단기 점검 등 농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축사 안전관리 요령을 설명했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 육성기의 조사료 급여와 사양관리가 이후 비육 성적과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성장단계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며 "한우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TMR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생산비 절감과 농가 수익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란 기자
yunglan528@hanmail.net

축산물품질평가원, 첫 '전자출하시스템' 황성케이씨 도입

농가·운송업자·도축장 출하정보 전자 연계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강원도 내 도축장 가운데 처음으로 황성케이씨 도축장에 '전자출하시스템'을 시범 적용하며 축산유통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자출하시스템은 농가·운송업자·도축장 간 거래 출하 및 입고 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계하는 디지털 유통 서비스다.

종이 서류와 수기 입력을 대체해 축산물 이력과 입고·유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과 정보 정확성·투명성 향상이 기대된다.

특히 이번 도입은 황성균·황성축협·황성케이씨가 축산행정·지원·생산을 위해 운영해 온 공동시스템에 전자출하시스템을 연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보유한 축산 데이터를 지역 축산 네트워크와 연계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현재 황

성케이씨를 포함해 전국 19개 작업장의 전자적자원관리시스템(ERP)과 전자출하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활용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드람엘피씨(경기 안성)와 창녕축산물공판장(경남 창녕)은 소 출하 업무 전 과정에 전자출하시스템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황성케이씨에서 출하자 및 도축장 관계자들이 전자출하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도매시장 거래,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경매·입찰
품목별로 정해진 시간에 공개적·경쟁적 거래를 통하여 수급사정을 반영한 가격에 낙찰



정가매매·수의매매
출하자와 구매자가 제시하는 다양한 조건(가격, 물량 등)을 기초로 도매시장법인(경매사)이 거래를 주관



전자거래(상·물 분리거래)
도매시장법인이 운영하는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해 거래하면 물건을 산지에서 구매처로 직송



예약거래
도매시장법인과 상의하여 미리 예약거래 (3일, 7일, 한달, 시즌별 등)